https://doi.org/10.31821/HEM.86.7

『벽공무한』의 세 가지 이야기*

노상래**

‖ 차 례 ‖

Ⅰ. 서론
Ⅱ. 도시-하얼빈, 그리고 경성
Ⅲ. 음악-하얼빈교향악단, 녹성음악원
Ⅳ. 사람-백계 러시아인, 조선인 그리고 '쭉정이'론
Ⅴ. 결론

【국문초록】

이효석은『벽공무한』을 발표하기 전에 하얼빈을 기행한다. 따라서『벽공무한』은 기행 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에는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차용한 사례가 군데군데 있다. 이효석의 현실 감각이 둔감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바도 이 점이다. 현실에서 채택한 모티프를 매개로 그려낸 서사를 통해 이효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탐침하려 한다. 그를 위해 키워드를 셋으로 잡았다. 도시, 음악, 사람이 그것이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벽공무한』을 분석한 결과 숨겨진 메시지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일제의 위성국가였던 만주국이 표방했던 오족협화와 왕도낙토, 그리고 일제의 정치적 구호였던 내선일체와 조선어 폐지 등에 대해 이효석이 비껴가는 방식으로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벽공무한』이 발표 되던 즈음에 일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문인들을 정치의 나팔수로 내몰려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효석은 자기 방식의 국민문학론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일제의 정치적 자장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이효석은 불편한 글쓰기를 통해 지배 담론

* 이 논문은 2019년도 영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219A380036)으로 이루어졌음.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결과물이 『벽공무한』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하얼빈, 경성, 음악, 백계 러시아인, 쭉정이, 친일

I. 서 론

이효석이 『벽공무한』[1]을 발표하던 시기는 일제의 제국의식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소설가가 자기를 사정없이 그려냄은 소설가가 된 의무'[2]임을 잘 알고 있던 이효석이 의무감에 충일하여 발표한 작품이 『벽공무한』이다. 시대적 정황을 읽고 처세하면서 '사정없이 그려'낸 작품이 『벽공무한』이라면 지우지 못할 당대의 이야기가 어떤 무늬로건 그려져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소설 속에 드리운 이효석의 정치적 감각은 어떤 무늬인지를 살펴 『벽공무한』 속에 감추어진 이효석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벽공무한』은 1939년 여름에 있은 이효석의 하얼빈 여행의 여행기 성격을 띤다.[3] 그리고 하얼빈 여행의 경험이 녹아 있는 『벽공무한』은 숭실전문 졸업생 K군의 편지[4]에서 일정 부분 소재를 차용하고 있다. 특히 나

1) 원제는 『창공』이며, 『매일신보』 1940년 1월 25일부터 7월 28일에 걸쳐 연재된 작품으로, 1941년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하면서 『벽공무한』으로 개제되었다.
2)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전집』 5, 창미사, 2003, p.332(이하 『벽공무한』 인용은 쪽수만 기재함).
3) 이효석은 1939년과 1940년에 하얼빈을 여행한다. 첫 번째 하얼빈 여행의 단상은 수필 「大陸の皮(대륙의 껍질)」과 『벽공무한』으로, 이듬 해 여행기는 단편 「哈爾濱」과 수필 「新しさと古さ(새로운 것과 낡은 것)」로 그려진다.
4) 이효석, 「북만주소식」, 『이효석전집』 7, pp.277-278(원제는 「北滿だより」이며 『朝鮮及滿洲』 1939년 11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아자와 천일마의 사랑담은 K군의 편지에서 힌트를 얻은 바 크다. 그래서 『벽공무한』은 K군의 고민에 대한 해답의 글쓰기로 간주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소설에는 당시에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민족적 고려가 버무려진 이효석의 감각이 드러난 고도의 글쓰기로 읽을 수도 있다.

『벽공무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첫째, 국민문학적 성격을 가진 친일의 소설로 읽는 방식이다. 이경훈이 대표적인데, 그는 『벽공무한』이 "시종일관 일본 제국의 하늘 밑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소설로써 '왕도낙토'와 '대동아공영'의 '이념'이 스며있는 '국민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5]

둘째, 우회적 글쓰기를 통해 당대 정치적 상황을 비꼬거나 저항하는 글쓰기로 읽는 방식이다. 김재용은 이효석의 유럽추종주의 지향과 조선적 향토색 지향의 특징을 규명하면서 「벽공무한』을 "전체주의라는 당대의 지배이념에 우회적으로 저항"[6]하는 글쓰기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중립적 태도로 읽는 방식이 있다. 이미림은 『벽공무한』을 "기형적인 시대와 사회를 방관하는 유희적 노마드의 여행"[7]으로 간주

---

5)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230 및 p.199. 김미영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이효석의 이국취향」(『우리말글』 제39집, 2007.)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6)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집, 한국근대문학회, 2011, p.315. 비슷한 견해를 보인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양숙, 「이효석의 『벽공무한』 연구』(『어문연구』 제41집 1호, 2013),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35집, 2007), 조은주,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한국인문과학회, 『인문학논총』 제5집 1호, 2005), 김명훈, 「『벽공무한』 재독을 위한 몇 가지 단서와 하나의 텍스트」(『구보학보』 제12집, 2015), 김미현,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문화번역과 경계사유」(『한국학연구』 제36집, 2015).

7) 이미림, 「<벽공무한>의 여행모티프와 유희적 노마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26집, 2005, p.127.

하며, 김윤식은 “이효석의 창작은 당초부터 탈이데올로기적”이며, “창작의 모티프 자체가 미적 감각에 놓여 있어 어떤 역사의식이나 이데올로기적 내용도 끼어들 틈이 없다”라면서 “「합이빈」이나 『벽공무한』도 이런 문맥 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8] 즉 탈이데올로기적인 글쓰기가 그의 미적 근대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벽공무한』을 도시, 음악,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 이효석이 드러내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탐침하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벽공무한』이 담지하고 있는 정치적 감각이 규명될 터이고, 나아가 그의 문학에 드러난 친일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현실세계에 대한 작가의 내밀한 비판적 사유를 탐침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하얼빈 여행에서 “지금보다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구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9] 심정에 이르는 도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 도시-하얼빈, 그리고 경성

이효석이 『벽공무한』을 발표할 당시 하얼빈은 ‘로서아풍의 문호도시’, ‘동양의 파리’[10], ‘동양의 모스코-’[11]에서 일제에 의한 ‘총병참기지’로 탈바꿈되던 때였다.[12] 그런 변화의 양상을 이효석은 소설에서 ‘구라파문명

8)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pp.247-248 및 pp.275-276 여기저기.
9) 이효석, 「합이빈」, p.7.
10) 이운곡, 「哈爾濱의 露人 에미그란트」, 『조광』, 1939. 8, p.97.
11) 방건두, 「북만주유기」, 『조선일보』, 1935. 5. 24.
12) 임성모, 「하얼빈의 조선인 사회」,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pp.278-302 참조).

의 진열장'[13]에서 '국제적 쭉정이의 진열장'[14]으로 바꿔 말하고 있다. 이런 치환은 '경이와 탄식'[15]을 수반한다. 이 경이와 탄식은 하얼빈의 변화, 즉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교체되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도시의 변화를 바라보는 이효석의 시선은 특이하다. "변하는 건 무심한 벌판이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이요 주인"이며, '사람만이 변하는 것'[16]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들이 하얼빈을 '지옥 중의 지옥'으로 규정하면서 밤의 여인들을 '화류병균부르커'[17]로 호명할 때에도 하얼빈을 바라보는 이효석의 시선에는 따스함이 묻어있다. 그런 시선이 여주인공 나아자[18]와 관계를 맺는 동인이기도 하다.

소설에서는 하얼빈을 '국적과 인종의 진열장'[19]으로 호명하면서 놀라운 변화에 '경이와 탄식'을 발하지만 사실 제국의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은 전시된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히려 소설은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발견'[20]으로서의 하얼빈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것은 하얼빈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 일마가 추림백화점을 들러 '구라파 문명의 조그만 진열장'으로 명명하면서 이런 문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천여 년을 두고 쌓아 내려온 굳건한 전통의 빛"[21]이라고 말하는 것도 풍속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

13) p.98.
14) p.128.
15) p.18.
16) p.19.
17) 엄시우, 「합이빈의 외국정서」, 『만선일보』, 1940. 5. 24.
18) '나아자'Nadya(NAH-dya)라는 이름은 '나제즈다'Nadezhda(nah- DYEZH-dah)의 애칭인데 나제즈다는 러시아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이양숙, 「이효석의 『벽공무한』 연구」, 『어문연구』 제41집 1호, 2013, p.236).
19) p.100.
20) p.228.
21) pp.97-98.

그리고 하얼빈의 이국적 풍경을 보며 일마가 하얼빈(키타이스카야가)에 '들어서면 웬일인지 올 곳에 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대비적 감성의 표현이다. 즉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일마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염원의 감성이다. 이런 내면세계는 섬세하고도 위험하여[22] 유토피아로 남겨질 일인데, 일마가 하얼빈에서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적인, 존재하는 공간임을 확인한 결과물이다. 이를 두고 구라파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양의 파리'로 지칭되는 하얼빈에 드러난 속칭 '구라파주의'를 이효석은 문훈의 입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능보의 술회에 은파는 비로소 샐쭉해 하면서,
> "당신들의 그 꼴같잖은 서양 숭배 그만들 둬요. 거지가 뭘 보구 침 흘리듯 서양이라면 사족을 못 펴구 — 야만의 추태지 뭐란 말요."
> 흥분하는 양이 통쾌해서 훈은 숭굴숭굴 웃으면서,
> "누가 서양을 숭배하나, 아름다운 것을 숭배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것은 태양과 같이 절대라나. 서양의 것이든 동양의 것이든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 사족을 못써두 좋구 엎드려 백배 천배 해두 좋거든. 부끄러울 것도 없구 추태두 아니야" (170쪽)

서양 숭배에 대한 지적에 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이효석의 글쓰기가 서구 취향(구라파주의)이라는 세상의 지적에 대한 대답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글쓰기를 비껴가는 방식과 관련된 숨은 의미이다. 당대 국민문학론의 대두로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되고, 문인들에게 정치적 나팔수를 강요하던 당국에 대한 이효석의 대답인

22) '위험하다'라고 기술한 것은 현실공간에 대한 거부의 마음, 즉 정치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수도 경성에 대한 거부의 마음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필자가 해석했기 때문이다.

셈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하여 미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밝힘으로써 국민문학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태양처럼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다는 '문훈'의 말은 서양여인의 상징인 나아자의 "동양을 전 원래부터 이해하지만 그 동양의 아름다운 것을 참으로 즐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23]라는 말과 호응을 이룬다. '아름다운 것'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불변의 가치이고, 그 가치를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한 글쓰기가 『벽공무한』인 것이다.

하얼빈의 풍경 속에는 논란이 되는 일마의 일확천금의 횡재도 포함된다. 왕도낙토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설에서는 꿈을 이루는 낙토의 실현 장치로 채표와 경마가 설정된다. 천일마는 우연히 사둔 채표가 1만원[24]에 당선되는 행운을 안는다. 천일마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담담해진다. 행/불행, 가득 참/빔이 분간되지 않는 혼란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한 이유는 이내 드러난다.

> "가령 여기 오는 이 거지와 나와 무에 다를 게 있겠나. 내가 장할 것두 없구 그가 천할 것두 없구—내 맘과 그의 맘의 구별이 대체 얼굴 어느 구석에 나타나 있단 말인가." (55쪽)

주객일체의 마음, 천일마의 이런 내심이 소설의 전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채표를 바라보는 천일마의 속내와 유관하다. 정부는 "당선의 행운을 미끼삼아 수십 만민에게 조금씩의 분담을 지게하고 긁

23) pp.171-172.
24) 1920년대 1원의 가치는 지금 18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1만원은 현재적 가치로는 18억여원에 해당한다.

어모은 중으로 수만 원의 행운의 당선자를 뽑고는 나머지 수십 만금을 국민 구제 사업에 유용하자는 목적"으로 채표를 만들었지만, '구제사업의 고안보다도 백성에게 주는 채표의 인상'은 '당선 여부의 매력과 흥분'에 있다. 채표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유희로 읽힌다. 그래서 그런지 일마는 채표가 '일종의 국민적 도박'[25]이라고 꼬집는다. 유희와 흥분을 제공하지만 종국에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얼빈의 꿈이 도박으로 귀결되는 논리는 흥미롭다. 이런 논리는 경마에서도 나타난다.

일마와 나아자는 경마장을 찾아 계속 1등을 하여 마꾼들에게 행운을 안기던 '태양' 대신 '아킬레스'에게 위험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일마가 '태양'에 돈을 걸지 않고 '아킬레스'에 돈을 건 것은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 '태양'은 일본의 왕을 환기한다. 하얼빈의 절대 다수는 '태양'이 경마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여 실제 그 말에 돈을 건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태양'은 보란 듯이 일등을 하여 마꾼들을 흥분시킨다. '태양'은 기쁨과 행복의 화신이다. 하지만 마지막 경주에서 일마가 건 아킬레스에게 태양은 지고 만다. 아킬레스가 태양의 <아킬레스>였던 것이다. 일마가 가진 돈을 다 건 경주마 '아킬레스'가 '태양'을 이긴 것은 하얼빈에서는 색다른 경험이며 다른 측면에서 '행운'이었다. '국민적 제반 사상'이 '태양'과 연결된다면, 아킬레스는 보기 좋게 그 태양을 무너뜨린 <행운>이었다.

그런 점에서 추림백화점에 대한 일마의 감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층층으로 진열된 물품에서 '태양'으로 상징되는 일본을 본 것이 아니라, '구라파적인 은은한 윤택과 탐탁한 맛'을 봤고, '천여 년을 두고 쌓아 내려온 굳건한 전통의 빛'을 보았다. 일마를 쫓는 신여성 '미려'나 '단영'들이 평상시 맡던 문명의 냄새와는 다른 '특이한 냄새와 공기'였고, 그것은 '진짬'[26]

25) p.21.
26) '진짬'의 사전적 의미는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건'이라는 뜻이다.

이었다. 이를 '서양과 동일시된 문명의 시선으로 자기자신을 평가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한 양상'[27]으로 읽을 수도 있겠으나, 일마가 '동양에서 첫째가는 관현악단'인 '하얼빈 교향악단'을 초청하러 가서 본 것이 이런 것이라면 악단의 초청은 하나의 빌미일 수 있다. 그 지점에 나아자가 있다. 나아자가 쫓아간 것은 '태양'의 길이 아니라 '조선의 길'이었고[28], 설혹 하얼빈을 포함한 만주에 대한 호기심이 '만선일여, 오족협화, 왕도낙토, 대동아공영론의 일상화·풍속화된 한 가지 현상'[29]이라 하더라도 『벽공무한』이 곧장 그 현상을 추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만큼 『벽공무한』은 "텍스트상의 균열과 봉합들, 표면적인 의미와 은폐된 의미들 사이의 갈등과 상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 다층적인 소설"이며, 이 시기 이효석의 글들은 "정치우위론적 담론에서 벗어나 생리적인 비정치주의 문학, 취향과 예술과 사랑의 문학을 향한 고민과 실험을 보여준"[30]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해석의 다의성은 공존한다.

> 낡고 그윽한 것이 허덕어리며 물러서는 뒤ㅅ자리에 새것이 부락스럽게 밀려드는 꼴이 손에 잡을 듯이 알려진다. 이 위대한 교대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할빈의 애수는 겹겹으로 서러워가는 것이다.[31]

'낡고 그윽한 것이 허덕어리며 물러서는 뒤ㅅ자리에 새것이 부락스럽게 밀려드는 꼴'을 이효석은 '위대한 교대'로 읽어내지만, 그 교대는 '애수'를 수반한다.[32] 그리고 '위대한 교대'가 '애수'로 결판나는 그 '서러움'이 이

27) 이경훈, 앞의 글, p.206.
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살필 것이다.
29) 이경훈, 앞의 글, p.196.
30)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제3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p.56.
31) 이효석, 「합이빈」, 『문장』, 1940. 10, p.3.

효석이 하얼빈에서 느낀 감상의 실체이다.

'서러움'으로 상징되는 하얼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성공한 조선인 한운산에게서도 확인된다. "중국이나 만주 백성들을 등골부터 녹여내는 약"[33], 즉 아편을 팔아 부를 축적한 한운산은 하얼빈이 만들어낸 상징이다. 하얼빈을 위시한 만주에서 '아편밀매업자'는 '선계(鮮系)'[34]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일본인 관리들조차 '만주 와 있는 양복 입은 선계는 전부 조치 못한 질의 뿌로커-들 같다'[35]는 혐의를 덧씌우고 있는 마당에 선계가 '무기력, 무의지'할 뿐만 아니라 '마작 도박'과 이웃하여 사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천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주가 오족협화의 실험장으로서 '동양 각 민족의 표본진열지'[36]로 선전되면서, 인테리들에게 만주국 선계들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던 차에 이효석의 『벽공무한』은 출간되었고, 그래서 이 작품은 문제적이다.

천일마는 한운산의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하얼빈을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된다. 이 방문에서 천일마는 하얼빈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다.

> 하얼빈이라는 곳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 새로운 발견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인상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것을 신기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네. (중략) 깊고 어두운 구렁 속에 악의 꽃이 붉게 피어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32) 이효석의 소설에서 '애수'와 관련된 사항은 졸저,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p.291-298 참고할 것.
33) p.67.
34) 이운곡, 「鮮系」, 『조광』, 1939. 7. p.64. 그리고 조선인의 아편과 마약 밀매 상황이나 연관업 관련 사항은 박강의 「만주사변 이전 일본과 재만한인의 아편 마약 밀매 문제」(『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5집, 2003)를 참고할 것.
35) 위의 글, p.64.
36) 위의 글, p.64.

>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런 악과 죄 이외에 공포가 숨어 있을 줄은 아마도 헤아리지 못했으리. **하얼빈은 향수의 도시만이 아니라 공포의 도시임을 처음으로 깨달았네. 무시무시한 전율의 도시라네. 안심하고 즐거운 날만을 보낼 수 없는 위험하고 무서운 도시임을 서로 깨달은 것이네.**[37] (강조: 인용자)

소설은 '현실이 환상이라고 고발'[38]하는 방식으로 헤토로토피아적 공간인 하얼빈을 조감하였다. '향수의 도시'라고 여긴 하얼빈을 '무서운 곳', '불행과 죄악의 구렁', '공포의 도시', '전율의 도시'로 호명함으로써 이면에서 드러난 만주의 진면목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왕도낙토를 조롱한다. '만주의 인상이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낡고 그 윽한 것이 점점 허덕어리며 물러서는' 하얼빈에 대한 진단은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부르짖던 만주국과 뒷배인 일제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으로 읽힐 수 있다.

하얼빈이'향수의 도시가 아니라 공포의 도시'[39]이고, '대륙의 죄'[40]가 난무하는 장소라는 판단의 저류에는 하얼빈을 바라보는 일마의 다음과 같은 인식이 흐르고 있다.

> 쭉정이는 이뿐일까. 허름하게 차리고 무엇을 하려는지 분주하게 포도를 지나는 무수한 사람—또한 쭉정이들이다. 묘지에서 만난 이봐놉도 쭉정이요, 병든 에미랴도 쭉정이다. 그리고 나아자—그는 쭉정이가 아니던가.
>
> 그 역 쭉정이에 틀림없는 것이다.
>
> "그럼 나는 대체 무엇일까."

37) p.228.
38)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p.47.
39) p.228.
40) p.82.

> 일마는 자기 또한 하나의 쭉정이임을 알았다. 든 돈 일만 오천원이 생겼대야 지금 정도의 문화사업을 한 대야 기실 쭉정이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쭉정이끼리이기 때문에 나아자와도 결합이 되었다.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한 계급이다. 나아자나 자기의 그 어느 한 편이 쭉정이가 아니었던들 오늘의 결합은 없었을 것이다.[41]

하얼빈이 왕도낙토의 땅, 욕망의 실현 장소라 믿었지만 조선과 한 가지인 쭉정이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일마를 통해 하얼빈에 숨겨진 '복잡한 구렁'의 이중성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사실이 그의 서구 지향적 글쓰기 방식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운산의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대륙당>의 주인 한운산의 납치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은 '대규모 갱단'이다. 갱단은 호기롭게 몸값으로 삼십만원[42]을 요구한다. 소설에서는 '갱'을 주로 '외국인들로 된 대규모의 일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효석은 표나게 '외국인들로 된' 집단으로 '갱'을 설정함으로써 당대 일제가 조선인 반체제 인사들에게 덧씌우던 '불령선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계주의 글을 빌면 '황군'을 대적하는 세력-지나병단과 비적과 대도회(大刀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43], 당시 비적에 대한 정의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특히 비적의 일단으로 간주되던 불령선인의 경우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악질적인 술어'이다.[44] 조선인 반체제인사들을 일제는 비적, 마적, 불령선인 등으로 불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불령선인 혹은 불령단체는 항일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

41) p.128.
42) 지금 시세로 약 54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3) 박계주, 「마적」, 『박문』, 1940년 6월호, pp.9-10.
44) 김정주, 『조선통치사료-불령선인』 제8권, 東京 : 한국사료연구소, 1971, 해설 p.1.

주의자이거나 임정을 위시하여 항일독립무장단체들을 의미한다.[45] 따라서 '외국인들'로 구성된 갱은 불령선인이 아님은 자명하다. 하얼빈에 대한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성은 어떤 모습일까?

나아자와 함께 경성에 돌아온 천일마는 도회를 <혼부라>한다. 이들의 눈에 포착된 것은 호텔과 팔각당이다. 이는 천일마가 하얼빈에서 행한 공간이동-키타이스카야가, 추림백화점, 묘지-과 유관하며, 감상 또한 별스럽지 않다.

> "이곳에도 서양 문명이 상당히 뿌리깊게 배어 들었거든—적어두 겉만은."
>
> "당신의 고향이 아주 맘에 들었어요. 유쾌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 (중략)
>
> 북으로 향한 창을 여니 저물어 가는 뜰 안에 팔각당의 검츠레한 윤곽이 내려보인다. 나아자는 창 앞에 서서 부근의 풍경을 진기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
> "저게 조선의 집인가요?"
>
> "옛날사람들이 세운 낡은 집."
>
> "얼마나 넉넉하고 운치가 있어 보이는죠—흡사 만주에서 보는 것 같은."
>
> "같은 동양의 집이거든."
>
> "동양을 전 원래부터 이해하지만 그 동양의 아름다운 것을 참으로 즐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중략)
>
> "팔각당 넘엔 개천이 있구 그 넘엔 빈민굴이 있다우. 빈민굴 없는 데가 없겠지만 조선은 전체가 한 커다란 빈민굴이라우."

45) 박계주는 만주국시대 마적이 말을 타고 다니지 않는 도적으로 변모하는데 이를 비적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들이 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약탈, 납거(拉去), 능욕, 살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한다(박계주, 「馬賊」, p.7).

"그럼 빈민굴 속에서 함께 살죠. 누가 반드시 아름다운 것만을 원하나요." (171~1722쪽)

하얼빈과 경성이 만들어내는 심상이미지는 매우 닮았다. 하얼빈의 '태반이 가난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46]과 '조선은 전체가 한 커다란 빈민굴'은 호응한다. 그리고 '적어두 겉만은' '서양 문명이 상당히 뿌리 깊게 배어'든 호텔과 '옛날사람들이 세운 낡은 집'인 '팔각당'에 대한 배치는 '새것'에 의해 '낡고 그윽한 것'이 교체되는 하얼빈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효석의 『벽공무한』은 '하얼빈이라는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어두운 조선이 새로운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푸른 공간을 만들어 냈다'[47]고 보기보다는 푸른 공간이 허상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III. 음악-하얼빈교향악단, 녹성음악원

『벽공무한』에서 음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소설의 발단이기도 한 하얼빈교향악단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려가 중심이 된 녹성음악원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하얼빈교향악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소설은 천일마가 하얼빈교향악단의 초청 교섭을 위해 하얼빈으로 떠나면서 서사가 전개된다. 천일마가 초청하려 한 하얼빈교향악단은 만철 철도총국 소속이다. 이 교향악단 결성에는 이면이 있다. 곤궁에 빠진 백계러시아인들을 구제하고, 소련과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요원 양성과 반공 선전

46) p.128.
47) 이경재, 「이효석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제5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p.354.

을 목적>으로 북만주철도(北鐵)는 소련 국적 취득을 거부한 백계러시아인 2천명 이상을 재고용하게 된다. 그리고 만철하얼빈철로국은 백계로인 사무국과 공동으로 백계러시아인 종업원을 위안할 요량으로 음악회를 기획하여, 1935년 5월 3일에 대규모 연주회를 개최한다. 그런 기운에 힘입어 1936년 5월 1일 일만(日滿)구락부에서 '합이빈교향관현악협회'가 결성되며, 협회 소속의 '합이빈교향관현악단', 일명 하얼빈교향악단의 제1회 연주회를 5월 17일에 연다.[48] 하얼빈교향악단은 일제의 정치적 목적과 백계러시아인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묘한 결합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만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든 하얼빈교향악단이라서 상징하는 의미도 단순하지는 않다. 하얼빈이 이상향이 아님을 간파한 일마는 교향악단 초청을 빌미로 하얼빈의 속살을 본 셈이고, 그 연장선에서 '쭉정이'론을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 차이콥스키의 실내악은 개발에 편자같이 어리석은 군주의 귀를 무의미하게 스치면서 아깝게도 흐른다. 할빈은 이런 사치를 도처에서 물같이 흘리고 있다.[49]

무용지물에 불과한 차이콥스키의 실내악을 '사치'라고 판단하는 이효석의 감각은『벽공무한』에도 스며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빈교향악단은 그 어느 곡목보다도 먼저 만철로 대행되고 상징된 왕도낙토와 대동아공영의 팔굉일우적 이상을 연주한 제국주의적 교향악의 쇠바퀴 소리 시끄러운 한 파트'[50]라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얼빈교향악단을

48) 岩野裕一,『滿洲-知られざる音樂史, 王道樂土の交響樂』, 音樂之友社, 1999, pp.111-113.
49) 이효석,「합이빈」,『문장』, 1940. 10, p.8.
50) 이경훈, 앞의 글, p.228.

초청하는 문화사업은 '기실 쭉정이밖에는 안 되는 것"[51]이라는 천일마의 판단도 적절하다. 그렇다면 천일마가 기대하는 진정한 문화사업은 어떤 것일까?

> "사람의 사회가 아무리 변천한다구 해두 음악에 대한 사랑만은 변할 날이 없을 것요. (중략) 음악 속에 잠겨 있는 뭇사람의 감정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고래의 허다한 정치가와 사상가가 이루지 못했던 인류의 이상적인 사랑의 나라를 가장 수월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음악에서 받는 순간의 영감은 사상가의 백가지의 이론보다도 더 즐겁고 효과적이요, 강렬한 것이니까—음악은 생활의 밥이요, 아니 밥 이상의 것일는지두 모르지."(305쪽)

예술과 생활이 일치되는 '음악의 생활화', '생활의 예술화'가 이효석이 추구하는 문화사업의 요체이다. 어떤 불순한 의도도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사상가가 이루지 못했던 인류의 이상적인 사랑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생활의 최고 이상'이라고 믿는 천일마에게 음악은 정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다. 음악의 일반화, 대중화, 생활화가 문화사업의 궁극의 목표였고, 이는 곧 정치에 구애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상가의 백 가지 이론보다도 더 즐겁고 효과적이고 강렬한 것'이 음악이라고 믿는 천일마에게 정치는 한낱 장식물일 뿐이었다. 정치를 넘어서는 음악, 이것이야말로 이효석이 소설에서 음악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효석의 음악에 대한 사유가 특별함은 다음 인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51) p.129.

>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수런수런하게 떠들며 음악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는데도 차이코프스키의 애상적인 선율이 유감없이 이어진다. 이것이 유럽적인 것인가, 그런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살아있는 것은 지키고 키우는 것, 이는 정말이다.[52]

'새로운 것과 낡은 것'으로 세태를 구획하는 이효석에게 있어 음악은 '낡은 것'의 상징코드이다. 그에게 음악은 "지방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한 세계 속에 조화되고 같은 감동으로 물들어지는 것'[53]이면서, 비록 '낡은 것'이지만 민족을 잃은 상실감이 삼투되어 '대단한 사치'로 여겨지지 않는다. 당시 일제의 근대화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던 하얼빈에서 음악은 '깊이 뿌리내려 살아있는 것'이어서 '지키고 키'워야 할 '낡은 것'이지 대체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대립적 구도를 통해 이효석은 대체되어서는 안 될 '낡은 것'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소설에서의 하얼빈교향악단 초청 모티프는 실제 경성에서 연주된 하얼빈교향악단의 사례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3월 6일부터 25일에 걸쳐 하얼빈교향악단은 일본 투어를 시작한다. 일본 투어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경성에 도착한 것은 3월 26일이었다. 하얼빈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유일한 조선인 단원이었던 김인수가 『동아일보』에 1939년 2월 8~9일 양일에 걸쳐 소개 기사를 써서 밑밥을 깔아둔 상태였다. 경성 연주는 경성일보사 주최, 조선방공협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조선방공협회의 후원은 의외이다. 1938년 8월 15일 경무국 보안과 주도로 설립된 이 단체는 '공산주의 사상의 철저 박멸, 황도사상의 선양'을 통해 '지나사변'의 장기화에 따른 '국방적 필요'에 대응함이 설립 이유였다.[54]

52) 이효석, 「새로운 것과 낡은 것-만주여행단상」, 『만주일일신문』, 1940. 11. pp.26-27, 『이효석전집』 7, pp.319-320.
53) 이효석, 『화분』, 『이효석전집』 4, 창미사, 2003, p.170.

식민지 모국에도 설립된 적이 없는 독특한 단체였다. 군중 모집을 위해 영화와 연극 관람이 장려되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연주회를 후원한 것은 모양새가 생뚱맞지는 않다. 이 연주회는 '반도 최초의 본격적 심포니 하얼빈교향악단 대연주회'라는 제목 하에 '일만(日滿)**방공**친선예술사절단육십여명초청'[55]이라는 부제가 붙기 때문이다. 즉 문화 활동을 통한 교양 증진 같은 고상한 목적 때문에 개최된 것이 아니라 당국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방공'이라는 선전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런 필요 때문인지 『조선일보』(1939. 3. 5.)가 '합이빈 교향악단 연주여행 차 경성 통과'라는 제목으로 교향악단의 경성 통과를 <패스>한 것에 비해,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3월 14일부터 3월 26일에 걸쳐 총 12회 동안 광고, 기사, 좌담회, 평론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글들은 '국가총력을 모아 흥아의 신질서 건설'이라는 목표로 결집된다. 그리고 '선만일여의 의의'를 고양함은 물론 '좋은 음악을 접하지 못하는 반도 애호가 대중에의 공헌'[56]이 사이드 메뉴로 자리한다. 어차피 『경성일보』가 일어판이어서 독자는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 애호가 대중에의 공헌'이라는 목표는 특수한 계층의 제한된 인원에게만 유효하다. 아울러 입장권도 도쿄연주회와 마찬가지로 4원, 3원, 2원으로 비싸서 매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애호가 대중'에게만 공헌할 따름이었다.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인한 연습 부족으로 연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시선은 따가웠다.

하지만 역사상 '첫 외국인 교향악단'의 연주회라는 선전 효과 때문인지

54) 이태훈, 「일제말 전시체제기 조선방공협회의 활동과 반공선전전략」, 『역사와현실』 제93집, 한국역사연구회, 2014, p.134.
55) 『경성일보』, 1939. 3. 14. (강조: 인용자)
56) 「ハルビン交響樂團を語る座談會1-大きいスケール豊かな情緒」, 『경성일보』, 1939. 3. 16.

부민관은 미어터졌다. 이 연주회를 감상한 관람자들은 '일만 양국의 반공 정책 위에서 보이지 않는 탄환'[57]의 임무를 수행한 교향악단의 역할에 얼마나 공명하였을까? 조선 최초의 외국 교향악단의 경성 연주는 '희귀한 일' 혹은 '반기적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만큼 조선의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연주 실력 여하를 떠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문화도시 경성의 치욕' 혹은 '수치'로 여길 만큼 교향악단이 없는 경성의 현실에 대한 불만은 『벽공무한』의 천일마를 하얼빈의 길로 재촉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하얼빈교향악단의 존재 자체가 갖는 양가성이다. 하나는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가늠자로서의 가치이며, 다른 하나는 교향악단의 설립이 국가적 요청에 의해 만들어지는 데서 오는 국가적 선전도구라는 정치적 의미망이다. 이효석은 어느 쪽에 마음이 닿은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의 인용에서 찾을 수 있다.

> 음악은 말하자면 하나의 발명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멜로디와 화음은 현실 속에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음성과는 성질이 다르다. 음악은 자연의 음성이 아니다. 자연의 음성이 아무리 아름답고 묘하다 하더라도 한 토막의 음악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음악은 꾸며진 감동이요, 영감의 발명이다. (213쪽)

> "같은 진리를 생각하고 같은 사상을 호흡하고 같은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오늘의 우리는 한구석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요, 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 살고 있어도 구라파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며 구라파에 살아도 동양에 와있는 셈이다. 영훈의 구라파주의는 이런 점에서 시

57) 『만주신문』, 1939. 3. 1. 이경분, 「중일전쟁 시기 동아시아 교향악단 교류-하얼빈교향악단의 일본연주 여행과 경성연주회(1939)를 중심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제14호, 2018, p.134 재인용.

> 작된 것이다. 음악의 교양이 그런 생각을 한층 절실하게 해주었는지도 모른다. 음악의 세상에서 같이 지방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한 세계 속에 조화되고 같은 감동으로 물들어지는 것은 없다."[58]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효석의 음악에 대한 순수함이다. 음악은 '발명'이고, "멜로디와 화음은 현실 속에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음성과는 성질이 다르다."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가능한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실재(현재성)에서 비껴나 있으며, '현실 속에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음성'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에서 비껴나 있다. 그리고 동양(조선)에 살면서 '구라파'를 '호흡하고' 구라파에 살면서 동양을 그리는 것은 음악의 무경계성을 의미하며, 음악은 조화와 감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가치의 것이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때 이효석은 이를 일러 교양이라고 했다. 따라서 하얼빈교향악단으로 상징되는 이효석의 음악은 국가적 선전도구로서의 정치적 의미망에서 비껴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효석 소설에서 음악은 '근대적 서구문화를 대표하는 보편적 교양으로 등장'하며, '인간 영혼을 정신적으로 고양, 심화, 순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59]

선전도구로서의 음악에 대한 거부는 다른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일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전 대비 체제'의 필요, 사상적 유연성에 유혹될 가능성이 높은 조선 내 사상 동향에 따른 새로운 방공 체제의 필요와 더불어 "중국이 승리하면 조선이 독립한다"라는 풍설이 나돌던 때, 동요하

58) 이효석, 『화분』, 『이효석전집』 4권, p.170.
59) 서재원, 「이효석의 일제말기 소설 연구」, 『국제어문』 제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p.274.

던 조선인의 민심을 다잡을 필요 때문에[60] 급조된 「조선방공협회」의 후원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사가 주최한 하얼빈교향악단의 경성 연주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매우 정치적이었다. 그 정치성을 이효석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소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소설의 행간을 통해 정치적 감각을 감지할 수 있다.

> 무대만을 바라보며 물을 뿌린 듯이 고요한 장내에 베토벤의 「운명」의 선율이 우렁차게 고요하게 흘러왔다. 음악은 실생활의 감동을 전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운명」의 암시에 혼을 뽑히운 듯 조용한 속에서 감동에 사로잡히고 있었다.[61] (206쪽)

베토벤의 「운명」은 소설 속의 연주곡과 실제 연주곡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효석이 현실 속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채용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정보이다. 그것은 이효석이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제2부의 첫 곡이다. 소설에서는 제2부의 첫 곡목으로 '차이코프스키의 「호도인형」'이 연주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하얼빈교향악단은 경성에서 이 곡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석은 차이코프스키를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 제이부로 들어갔을 때 첫 곡목으로 차이코프스키의 「호도인형」의 연주

60) 이태훈, 앞의 책, pp.135-137.

61) 실제 경성 부민관에서 1939년 3월 26일(일) 저녁 7시에 하얼빈교향악단의 연주회는 개최되었다. 이때 연주된 곡명은 베토벤의 「에그먼드서곡」과 「교향곡 5번(운명)」, 글링카의 「루스란과 루드밀라」, 무소륵스키의 「민둥산의 일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광상곡」 등이었다.(『경성일보』, 1939. 3. 22.)

> 가 시작되었다. 악장마다 북국의 정서가 가장 짙게 나타난 곡조이다. 단원의 태반에게는 그 자기들 조국의 곡조가 더욱 적절한 정을 일으킬 것은 사실, 연주는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시작되었다. (212~213쪽)

「호도인형」은 '북국의 정서가 가장 짙게 나타난 곡조'이면서 나라를 잃은 백계러시아인들이 '자기 조국의 곡조'이기 때문에 망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곡조라고 이효석은 판단했고, 이 곡에 자신의 망국의 한을 삼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 연주가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시작되었다'고 감정이입을 한다. 그 감정의 상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된다.

> 아무데서도 들을 수 없는 유쾌한 음성의 배열이 자연이 주는 기쁨 이상 몇 곱절의 기쁨을 준다. 장내는 물을 뿌린 듯이 조용하고 청중은 감동 속에 젖어 있었다. 차이코프스키의 혼이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나 있는 셈이었다.
>
> 음악 속에 잠겨 있는 일마와 나아자의 마음 역시 모인 수천 사람과 똑같은 순간의 감정 속에 있었다.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한 빛으로 칠해진다. 푸른 물속에 잠기면 다 함께 푸르게 물드는 것과도 흡사 하다. 일마들도 푸른 물에 물든 눈으로 한결같이 무대 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213쪽)

'차이코프스키의 혼이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나' 일체감을 준다. '일마와 나아자의 마음'과 '수천 사람'이 '똑같은 순간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한 빛으로 칠해진다"라고 말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나라 잃은 '쭉정이들'의 일체감을 내세워 백계러시아인들과 조선인들의 처지를 빗댄다. 고도의 정치적 감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차이코프스키의 「호도인형」은 나아자와 일마, 백계러시아

인과 조선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설적 장치이다. 그리고 그 장치는 쭉정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치를 비껴나는 방식으로 정치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임화는 소극적 저항이라 일컬었다.[62] 이효석은 정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음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비정치의 정치성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문화로 대변되는 교양과 근대를 이식한 일제를 상징하는 자본의 논리가 자주 맞선다. 녹성음악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런 시선은 두드러진다.

자본의 시선으로 본 문화사업은 '순진한 시민을 허영의 구렁 속에 빠트려 넣'는 돈 안 되는 장사였다. 그런 자본의 논리에 익숙한 만해를 향해 "베토벤이나 쇼팽을 모를 사람이 현대인치구야 당신을 내놓고 누가 있겠수"라고 미려는 힐난한다. 미려의 심중에는 돈보다는 음악이 가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허영이라니 그건 당신 자신 당신을 모욕하는 셈이구 무지를 폭로하는 폭밖엔 더 되우."
>
> "허영이 아니구 뭐요. 그럼 속을 채리구 난 후에 문화를 숭상해두 하는 것이지 입에 밥두 못 들어가는 처지에 음악이니 예술이니 하구 흰 멋들을 피우는 게 허영 아니구 무엇이란 말요." (중략)
>
> "밥만 먹어야 속이 든든해지는 줄 아는 모양이요. 음악두 양식의 하나라구요. 뱃속만 알구 정신은 모르시우."
>
> "빈속에 음악만 먹어두 배가 부르다. 어디 그럼 음악만 먹구 살어보지 좀."[63]

62) 임화, 「조선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 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p.39.
63) pp.33-44.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즉 허영과 문화의 관점의 차이는 먹고 사는 것에서 나뉜다. 어디에 가치 우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미려와 만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대성이 개입되어 있다. 이효석은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대성이란 다름 아닌 조선이 처한 정치와 연관된 문화적 실정이나 여성의 지위와 상관이 있다.

미려의 녹성음악원 설립은 충동적 성격이 강하다. 처음에는 '동요원' '음악단'을 꾸려보려 했으나 종세의 개입으로 훨씬 구체화된 것이 녹성음악원이었다. 교향악단 초청 관련 신문기사를 기화로 '녹성음악원'은 급조되었고, 오케스트라 초청 경비의 절반인 오천원을 음악원의 이름으로 후원할 것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급조된 녹성음악원의 향후 발전계획안도 서둘러 만들어진다.

그런데 미려의 계획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육, 경리 모든 것을 여자들의 손으로서만' 하겠다는 것이다. 획기적이다. 여성을 위한 권리장전의 선언이다. 미려의 이러한 포부는 남편인 유만해와 이혼을 한 이후 녹성음악원의 설립으로 구체화된다.

>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의 세 과를 두구, 따로 전부를 통틀어서 합창단, 실내악단, 교향악단을 조직한다거나, 학생은 삼년 동안의 과정을 마치구는 음악원을 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눌러앉아 그대로 실내악단, 교향악단의 일원으로서 일을 보게 되거든. 즉 음악원은 교육과 활동 두 가지 방법을 겸해 교육을 받은 후에는 즉시 그대로 원에 소속해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그런 조직으로 할 생각이야, 한 가족같이 단란하게 지내면서……"
>
> "바로 조그만 이상국이게. 생활과 예술의 합치—얼마나 그리운 경치일꾸.[64]

이러한 미려의 문화사업을 바라보는 소설 속 내부자 시선은 분분하다. '유한마담의 사업욕', '결혼 권태기에 스며든 유혹', '결혼 팔년에 무자식' 때문, 남편인 만해의 '방종' 때문이라는 둥 시선은 갈리나 초점은 여성 비하로 모아진다. 그런 시선에 아랑곳없이 미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한다. 녹성음악원의 원생 선발 기준이 그것이다. '학력보다 용모'에 우선을 두어 '미모의 여성만 모아서 교육시킬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교육의 기회 균등' 대신에 '선발된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완전한 최상의 예술가'를 만들자는 속내 때문이다. 이런 기준이 '곡해되거나 비난 받을 일'임을 알면서도 그리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주의이다. '귀족적'이되 '독창적'이라고 믿는 미려의 생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의 예술화' 혹은 '예술의 생활화'를 표방하는 미려의 녹성음악원이 유토피아적 이상론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그녀가 구상하는 각양각색의 화려한 건축설계가 뒷받침한다. 휴게실, 홀, 식당, 도서실, 연습실, 별관의 체육실과 온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울 화려한 집물들과 화초, 더불어 풀장과 다양한 수목으로 꾸며질 정원 등은 남편인 유만해가 금광 투자의 실패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까지 한 미려의 경제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음악원은 원장 미려, 학감 혜주, 휴양부장 단영 등 세 <여성으로만> 운영될 참이다. '실패한 여자가 알몸으로 세상에 부딪쳐 다시 살아가려구 할 때' '멸망의 길' 대신 '재생의 길' '부활의 길'을 <믿어서> 함께 걸어가려는 의도이다. 의도의 참신함이 현실의 객관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효석은 플롯을 그렇게 짰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술의 세계를 속세의 것과 혼동할 것은 조금두 없"[65]다라고 생각하는

64) p.295.
65) p.331.

녹성음악원 예비 원장 미려의 생각은 현실과 유리된 예술세계의 창조를 예정하고 있다. 녹성음악원이야말로 '이상국'이며 '생활과 예술의 합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 녹성음악원의 지향은 현실의 공간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유토피아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미현은 '녹성음악원은 소설 속 여성댄디들이 불완전한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구락부'[66]로 규정하면서 '미래가 아닌 현재, 공상이 아닌 이상, 욕망이 아닌 행위, 소비가 아닌 생산을 통해 현실 자체를 바꾸려는' 여성댄디의 정치성을 읽어내고 있다.[67]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음악원은 상징이다. 즉 남성중심의 현실세계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며, 그것이 음악/교양/문화에 담긴 정치성인 것이다. 이런 저항의 몸짓은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남성(세력)에 대한 맞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효석의 노림수이다.

IV. 사람-백계 러시아인, 조선인 그리고 '쭉정이'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백계러시아인을 지칭하여 이운곡은 '멸망의 길로 향하는 민족의 표본'[68]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백계러시아인과 조선인의 공통점은 '고국이 없고 민족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공통점 때문이리라, 천일마와 나아자의 사랑은 일사천리이다. 이들의 사랑을 암시하는 복선으로는 여러 모티프가 동원되는데 음악이나 영화가 대표적이다.

파리에 그림을 배우러 간 아라비아 청년과 빨랫집 소녀와의 국경을 초

66) 김미현, 앞의 논문, p.380.
67) 김미현, 앞의 논문, p.382.
68) 이운곡, 「哈爾賓의 露人 에미그란트」, 『조광』, 1939. 8, p.98. 하얼빈에 거주하는 백계러시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프레더릭 C. 코니, 박원용 역, 『10월혁명:볼셰비키 혁명의 기억과 형성』, 책세상, 2008, pp.111-113 참고할 것.

월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파리의 뒷골목」은 좋은 예이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파리 청년이 아니라 아라비아 청년이라는 사실이 일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국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눈으로 보고 이 맘으로 생각하면 그만이 아니예요'라는 영화 속 대사에 일마는 충분한 자극을 받는다. '말과 피를 넘은 사랑'이 하고 싶었던 일마의 초월적 사랑을 오족협화의 현실 구현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특히 내선일체에서 희구하는 사랑은 내선간의 결합이지 백계러시아인과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마가 나아자와 꿈꾸는 사랑의 결실은 이런 정치적 구호 바깥에 자리한다.

일마가 나아자와 갖는 동병상련의 일체감은 혈족, 즉 피의 빛깔 때문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공통점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효석은 극단적으로 '쭉정이는 쭉정이끼리만 피와 피부를 넘어 피차를 생각하고, 구원하고 합할 수 있는 것'[69]이라고 단정한다. 이 쭉정이론을 관통하는 공통된 심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이다. 소외와 배제의 논리는 제국의 것이고, 일마와 나아자는 제국 바깥에 있는 타자인 것이다. 이 점이 일마와 나아자를 묶어주는 유일한 이유인 셈이다. 하얼빈에서 일마는 백계로인을 환기했고, 그를 통해 조선인을 비쳐보았다. 나아자라는 거울을 통해 일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족협화의 도시 하얼빈의 일그러진 모습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나아자와 천일마의 동병상련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승화되기에 '쭉정이'는 그 사랑의 완성을 가능케 하는 숙주인 셈이다.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관계를 맺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는 이지러지거나 파괴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만해와 미려의 관계이다. 천일마는 미려의 결혼 전 애인이다. 하지만 미려는 순수한 사랑 대신 돈을 좇아 유만해와 결혼한다. 자본을 선택함으로써 사랑의 순수성을 폐기한 것이다. 만해

69) p.239.

와 미려의 관계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 여기에 일마와 나아자의 관계성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은 사랑의 논리가 승리자로 그려짐으로써 쭉정이들이 쭉정이로 남지 않고 식민지 근대가 이식한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만해와 미려의 파국으로 일마와 나아자의 사랑은 더 도드라진다.

만해는 일마와 동창이지만 사랑을 이기는 무기가 '황금'이라는 통속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백만금의 상속을 받은 법학사' 유만해는 미려를 가볍게 차지한다. 하지만 그는 금광사업에 손을 됐다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만해가 손을 된 금광이 하필 '홍천금광'[70]이다. 금광에 미쳐나던 당대 조선의 풍속도를 유만해의 금광 투자로 '생애의 파멸'을 맛보게 한 설정은 가볍지 않다. 채만식이 '황금광시대(黃金狂時代)'라 이름 붙였던 바로 그 금광 열풍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음을 이효석은 유만해를 통해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의 열성이란 것이 언제든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라든지 '예나 지금이나 황금광시대이긴 마찬가지인데 병 중에서두 큰 병'[71]이라는 진술이 이효석의 일제 식민지 수탈의 고발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대를 읽는 이효석의 눈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조선을 대표하는 청년실업가 유만해의 몰락은 예사롭지 않다. 그 몰락이 '홍천광산'의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설정한 것은 의도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당대 가장 수익이 좋던 고바야시의 <홍천광산>이 몰락의 장치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사적이다. 홍천광산의 높은 수익은 결국

70) 홍천광산은 고품위 금석이 채굴되어 제련을 그치지 않고 약간의 손질만 해서 곧장 조선은행에 판매했을 정도로 일제강점기 조선을 대표하는 금광이었다. 소유주는 일본인 고바야시(小林)였다. 그렇게 번 돈으로 오늘날 경성광산전문학교를 1937년에 설립하기도 했다. (https://blog.naver.com/gamsiw/172921435)

71) p.134.

조선에서 행해진 일제 수탈의 단면이고, 그런 홍천광산의 몰락을 소설적 장치로 끌어온 것은 이효석의 속내가 만해사건을 통해 투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해부부는 돈으로 맺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늘 살얼음판이었다. 식모의 눈에도 "부부의 풍습이 항상 이상하게 보였다." 파멸의 전조인 것이다. 그런 이상한 부부 관계는 유만해와 금광 브로커 박남구가 벌이는 폭행사건이 있던 날 파국의 길로 활짝 열린다. 유만해와 박남구의 폭행사건 후 유만해가 기생 청매의 집에서 외박을 하고 나타나자 미려는 그런 만해를 야만인으로 몰아붙인다. 그리고 이내 노라로 변신한다.

> "중대한 일은 무어구 사소한 일은 무어란 말요. 가정은 사소하구 밖에 일만 중대하단 말요. 그따윗 사소한 가정을 가져서는 무엇 한단 말요."
>
> "일에 바쁜 남편이 밖에서 하룻밤쯤 지내구 왔단들."
>
> "오라, 그게 남자들의 특권이란 말이지. 누가 맨들어논 특권인구. 당신두 교육받은 현대인이요. 현대인의 자랑을 요만큼이나 가졌소? 멀쩡한 야만인이지. 어디 남자에게만 그런 특권이 있으라는 법인가 봅시다. 아내는 죽어만 지내라는 것인가 봅시다.(중략)
>
> 아내로서의 용기가 아니라 남편과 대등한 한 사람으로서의 용기를 낸 것이다. 대담하고 올찬 용기였다." (160쪽)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 사내들처럼 만해는 남자들의 특권의식에 물들어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향해 미려는 '대등한 한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고 다그친다. 남편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면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네의 노리개'[72]로 살기를 거부하는 '대담하고 올찬 용기'를 부린다. 비로소 미려는 만해의 파멸을 맞아 여성을 발견했고, 개인을 발견

72) 나혜석, 「노라」, 『신여성』, 1926. http://blog.daum.net/paulsong/15860751

하게 된다.

미려는 만해처럼 외출한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귀가하자, 만해의 반응은 뜨겁다. 만해는 활활 타오르는 노염을 삭이면서 미려의 행태를 야유한다.

> "구라파니 개인주의니 반지빠르게 배워 가지구는 남녀동등이니 아내의 지위가 어떠니 철없이 해뚱거리는 꼴들이 가관이야. 몸에서는 메주와 된장 냄새를 피우면서 문명이니 문화니 하구 가제 깬 촌놈같이 날뛰는 것을 ……복수는 다 무어야. 여편네가 사내에게 복수라니. 이 사람 없는 가정을 누군 달갑게 여기는 줄 아나. 한꺼번에 다 부서 버릴까부다." (161쪽)

구라파의 개인주의와 '남녀동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미려를 '철없이 해뚱거리는' 꼴불견으로 규정하는 만해의 사고방식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런 만해에 맞서 미려는 '인간성을 막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기꺼이 소설 속 영화 「남방비행」의 여주인공처럼 '가정의 노라가 아니라 인간의 노라'가 되기를 천명한다.

이처럼 천일마와 나아자/유만해와 미려의 관계는 대조적이다. 조선의 <사람들>인 미려/유만해는 어긋나고, 깨지고, 불화하고, 폭행하지만, 천일마와 나아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일제가 이식한 근대, 특히 자본이 이식한 근대의 최상층에 자리한 만해와 미려의 관계는 부정적이며 불안하다. 일제가 이식한 근대의 상징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그래서 정치적이며, 감각적이다.

일그러지는 남녀 관계의 또 다른 양상은 영화사 사장 김명도와 여배우 단영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명도를 바라보는 단영의 시선은 다음 인용에서 압축적으로 그려진다.

> "이렇게 데리고 나와 보니 당신 모양이 꼴불견이구료. 서울서 십여 년을 지내면서 그렇게두 때를 못 벗었어요? 그 맵시며, 걷는 모양이며가 흡사 시골뜨기니." (58-59쪽)

일마가 '서푼어치 여배우'[73]로 취급하는 '단영'과 '반도영화사 사장 김명도'는 화려한 치장/'꼴불견', '때를 못 벗은', '시골뜨기'로 대비된다. 이런 방식은 나아자의 '애처로운 자태'와 단영의 '화려한 치장'의 대비와 유사하다. 나아자의 '애처로운 자태'는 김명도의 '꼴불견' '때를 못 벗은' '시골뜨기'와 동격인 셈이다. 그런데 소설은 명도와 단영을 둘 다 싸잡아 '공작' 혹은 '삽살개'에 비유한다. 명도는 그렇다하더라도 단영까지 매도하는 이유는 '뛰어나게 사치한 까닭'에서다. 이들의 사치는 하얼빈에서 묵은 북만호텔[74]로 집약된다. 나혜석도 일찍이 기행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바로 그 호텔인데[75], '에로의 세계 구로의 천지'[76]라고 명명한 하얼빈에서 단명과 명도의 사치스런 행동은 어쩌면 일그러진 근대의 좋은 본보기였다.

이와 같은 구도의 설정은 명확한 지향점이 있다. "사회의 온전하지 못한 사태가 병적인 인물을 만들었다"[77]라고 진단하는 이효석은 명도와 단영으로 대표되는 '덜된 것'들을 '동포'로 부르기도 꺼린다. 특히 단영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내는 대목에서는 이효석의 생각이 훨씬 구체화된다. 사랑의 구

---

73) p.91.
74) 조선인 밀정 우덕순이 유흥시설까지 갖춘 북만호텔에서 일본 특무기관원과 먹은 식사비로 지출한 25엔(현재 수백만원)에 대한 북만호텔 발행 영수증이 발견된 바 있다.(https://jeostory.tistory.com/344) 즉, 북만호텔은 당시 매우 고급호텔이었음을 증빙하는 자료인 셈이다.
75) 나혜석, 「쏘비엣露西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삼천리』. 1932. 12, p.19.
76) 朴게렌스키, 「합이빈의 정조」, 『삼천리』 1933. 9, p.19.
77) p.24.

애가 실패하자 단영은 일마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다. 그가 쓰러지자 단영은 일마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간다. 그리고 밤을 함께 보낸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아침을 맞은 일마는 눈앞에 펼쳐진 정경에 소스라친다. 단영의 행동이 '괴악한 음모요 죄악'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모양새는 식민지 수도 경성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단영의 순정은 일방적인 것이며, 악마적 속성의 자기중심적 행위의 결과물이다. 일마의 사랑을 얻지 못한 단영은 자살 시도까지 하나 실패로 끝난다. '실패된 결의'는 '저주된 운명'의 장난이라 할지라도 주홍글씨가 되어 그녀의 삶을 구속할 것이다.

이처럼 사랑을 핑계 삼은 것이긴 하지만 식민지 수도의 화려한 여성들, 즉 신여성들은 하나 같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점에서 나아자의 대척점에서의 쭉정이임에 틀림없다. 쭉정이들의 삶은 그림자 인생이다.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 일마와 나아자의 혼인이었고, 거기에는 숭고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메시지가 구호처럼 어른거린다. 단영과 미려를 통해 마음이 흔들리는 천일마의 일탈로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일마와 나아자는 결국 사랑의 결합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서사는 구성되었다. 내선일체와는 다른 방식의 연애담을 통해 천일마와 나아자는 내선일체의 구호를 넘어서는 형국이다.

천일마는 나아자와 '말과 피를 넘은 사랑'[78]을 희구한다. 말은 문화적 본령이며, 피는 민족적 본령인데, 내선일체가 강조되던 시기에 이효석은 굳이 '말과 피를 넘는 사랑'을 갈망하고, 실제로 소설에서 내선일체가 아닌 천일마와 나아자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형국을 취한다. 그 사랑의 결합은 두 사람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애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78) p.78.

쭉정이론은 나아자의 조선어 공부로 완성된다.

> 그렇게 방안에서 한가할 때 나아자에게는 맡은 일과가 있었다. 벌써 언제부터인가 시작한 조선어의 공부가 그것이었다. 일마는 온순한 교사였다. 나아자의 갸륵한 뜻과 정성에 감동하면서 교사로서의 능력을 다하는 것이나 어학의 공부라는 것이 원래 한이 없는 것이다.
>
> (중략)
>
> "야니 유니 글자 하나로 음 하나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은 꼭 로서아어와 두 같아요."[79]

조선어교육폐지령이 발효되고 공식석상에서 조선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천일마는 공식어인 일본어 대신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조선어는 "로서아어와두 같아요"라는 나아자의 말에서 나아자와 천일마는 일체감을 획득한다. 조선어 가르치기는 분명히 일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이 또한 『벽공무한』 속에 깃든 이효석의 정치적 감각이다. 이도 소극적 저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극복이요 체관의 노력'[80]이라는 이효석의 주장은 『벽공무한』에 바치는 하나의 헌사이다. 그리고 "사람은 평생에 몇 번이고 재생하고 부활할 수 있는 숨 질긴 것"[81]이라는 주장은 쭉정이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이다.

평상 시 일마와 나아자의 대화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영어나 러시아어의 선택으로 지배어인 일본어가 배제되는 상황 설정은 의도적이다. 이처럼 제국의 언어를 배제하는 기획은 대담하다. 이것이 이효석의

79) p.290.
80) p.289.
81) p.292.

구라파주의를 구성하는 특이점이다. 그의 구라파주의는 일방적인 추수가 아니다. 고도의 균형감각 속에서 동양과 서양의 명암을 헤아려 보려 했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후진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다. 일명 '메주 내'와 '버터 내'의 시비를 넘어 그 둘이 서로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자는 것이다. 이는 동화나 배제로서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모색이다.

> 메주 내나는 문학이니 버터 내나는 문학이니 하고 시비함같이 주제넘고 무례한 것이 없다.(중략) 메주문학을 쓰던 버터문학을 쓰던 같은 언어의 세계에서라면 피차에 다분의 유통되는 요소가 있을 것도 사실이다.[82]

그랬기 때문에 이효석에게 동·서양의 생활의 차이는 '근본적인 난관'도 아니고 그 차이라는 것은 '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다.[83] 이효석에게 동·서양은 대립하여 배척하는 대신 양립하여 상호 등가적 가치 하에서 보족하는 관계로 설정된다. 이를 일러 이효석은 '유통'이라 불렀다. 이는 예속이 아니라 동등의 가치를 의미한다.

V. 결 론

지금까지의 도시/음악/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본 『벽공무한』은 일관되게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제국 일본의 상징인 만주국, 그 중에서도 하얼빈과 교향악단을 배경으로 왕도낙토와 오족협

82) 이효석, 「문학 진폭 옹호의 변」, 『이효석전집』 6권, 창미사, 2003, p.252.
83) p.310.

화를 빗겨가는 것이고, 나아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어긋나기이다.

『벽공무한』이 유통되던 시기를 즈음하여 국민문학론이 대두된다. 그런데 이효석의 국민문학론은 당시 유통되던 국민문학론과 궤를 달리한다. 국민문학론이 대동아공영권론에 바탕한 전쟁 예찬과 내선일체를 옹호, 미화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효석의 국민문학론은 미학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효석이 생각하는 국민문학은 이렇다. "매우 협애한 의미로 보아, 단순히 눈앞의 시국적인 것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국민 전반에게 즐겁게 읽혀질 수 있는 문학이야말로, 진정 그 이름에 값할 국문문학"[84]이며, '국민적 정열을 담은 모든 문학'이 '훌륭한 국문문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국에 적절한 표어를 써서 늘어놓는다던지,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관조가 얕고 연소(燃燒)가 희박한 것은 국민문학이라는 이름에 값하지 못할 뿐"[85]이라면서, 그는 '시정물과 연애물'[86]로 국민문학을 대신하려 한다. 이효석의 이런 생각은 비단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문연재소설과 관련하여 『삼천리』 편집진이 "「전쟁」을 취급하시는가"라고 묻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작중인물의 생활에 은연 중에 그 영향이 침윤될는지는 모르나 창작의식에 올리지는 않습니다"[87]라고 대답한다. 그의 문학창작이 전시체제에 직접 호응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다음의 문장도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

84) 이효석, 「今後如何に書くべきか?—特に貴下の興味を感ずる主題は?」, 『국민문학』, 1942.1. p.162.
85) 이효석, 「新しい國民文藝の道—私」はかう考,へてるる」, 『국민문학』 1942. 4, p.43.
86) 이효석, 「문학과 국민성-한 개의 문학적 각서」, 『매일신보』, 1942. 3. pp.3-6, 참고, 「私はかう考へてるる」, 『국민문학』 1942. 4, pp.43-46.
87) 이효석, 「신문소설과 작가의 태도」, 『삼천리』, 1943. 3, p.123.

> 종교문학 물론 좋으며, 애욕문학 또한 좋고, 자연문학 또한 좋은 것이다. 국민문학이 나올 추세라면 그 탄생이 물론 기쁜 일이다. 건망증에 걸려 한 가지 제목에만 오물하다 문학의 다양한 품질과 향기를 힐난함은 과분한 욕심이요, 쓸데없는 명예욕이다. 문학 상호의 방향과 양식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겸허함이 문학자의 진정한 태도일 듯하다. 문학의 진폭은 될 수 있는 대로 넓어야 함이로다.[88]

이효석은 '국민문학'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 국민문학이 '한 가지 제목에만 오물하다 문학의 다양한 품질과 향기를 힐난' 하는 '과분한 욕심'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시세를 거역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학자의 진정한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즈음의 이효석 문학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이효석의 국민문학론의 핵심은 '국민 각층의 생활을 탐구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생활의 반영'에 있기 때문에, 신체제하 국책 수행의 의미 즉,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와 대동아공영권 이념의 내면화 문제와는 무관하다"[89]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처럼 제국의 지배 담론이 미치는 범주 안에서 불편한 글쓰기를 통해 이효석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지배 담론에 어깃장 놓기이다. 비록 지배담론의 자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지배 담론을 모방,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소성에 근거하여 이질적인 모습을 재배치하면서 담론적 균열을 기획한 것이 『벽공무한』인 것이다.

---

88) 이효석, 「문학 진폭 옹호의 변」, 『이효석전집』 6권, 창미사, 2003, pp.252-253.
89) 김형수,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 『인문학논총』 제5집 1호, 한국인문과학회, 2005, p.32.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이효석전집』 1~7(창미사, 2003), 『이효석전집』 1~6(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경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만선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기타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김명훈, 「『벽공무한』 재독을 위한 몇 가지 단서와 하나의 텍스트」, 『구보학보』 제12집, 구보학회, 2015, pp.145-169.

김미영, 「《벽공무한》에 나타난 이효석의 이국취향」, 『우리말글』, 제39집, 우리말글학회, 2007, pp.239-267.

김미현,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문화번역과 경계사유」, 『한국학연구』 제36집,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5, pp.361-388.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집, 한국근대문학회, 2011, pp.297-318.

김정주, 『조선통치사료-불령선인』 제8권, 東京 : 한국사료연구소, 1971, 해설 p.1.

김형수,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 『인문학논총』 제5집 1호, 한국인문과학회, 2005, pp.27-52.

나혜석, 「쏘비엣露西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삼천리』, 1932. 12, p.19.

노상래,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p.273-303.

朴게렌스키, 「합이빈의 정조」, 『삼천리』 1933, 9, p.19.

박계주, 「馬賊」, 『박문』, 1940년 6월호, p.7.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제3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pp.47-69.

서재원, 「이효석의 일제말기 소설 연구」, 『국제어문』 제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pp.265-291.

이경분, 「중일전쟁 시기 동아시아 교향악단 교류-하얼빈교향악단의 일본연주 여행과 경성연주회(1939)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4집,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8, pp.117-148.
이경재, 「이효석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제5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pp.331-358.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김철 · 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이미림, 「〈벽공무한〉의 여행모티프와 유희적 노마드」, 『현대소설연구』 제2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pp.113-130.
이양숙, 「이효석의 『벽공무한』 연구」, 『어문연구』 제41집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pp.231-256.
이운곡, 「鮮系」, 『조광』, 1939. 7. p.64.
이운곡, 「哈爾賓의 露人 에미그란트」, 『조광』, 1939. 8, p.98.
이태훈, 「일제말 전시체제기 조성방공협회의 활동과 반공선전전략」, 『역사와 현실』 제93집, 한국역사연구회, 2014, pp.129-176.
임성모, 「하얼빈의 조선인 사회」,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임화, 「조선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 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한석정, 『만주 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얀소레키, 박선영 옮김, 「유대인·백계 러시아인에게 만주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 2014.
프레더릭 C. 코니, 박원용 역, 『10월혁명:볼쎄비키 혁명의 기억과 형성』, 책세상, 2008.
岩野裕一, 『滿洲-知られざる音樂史, 王道樂土の交響樂』, 東京, 音樂之友社, 1999.

Abstract

Three Stories in 『Byeok Gong Mu Han(벽공무한)』

Roh, Sang-rae

Lee Hyo-seok traveled to Harbin and published his novel 『Byeok Gong Mu Han』 that takes on the character of a traveling report. 『Byeok Gong Mu Han』 uses real events as motifs in many parts of it. It proves Lee Hyo-seok's views of reality is very sharp. This point is what my dissertation pays attention to. This dissertation is going to trace the writer's message through the narration that is described by motifs chosen in reality. The tracing tools are three key words - city, music, and human- in this paper. It is confirmed that the hidden message heads out to one directing point after analyzing 『Byeok Gong Mu Han』 using these three key words. It is the fact that Lee Hyo-seok supposes a passive resistance in a way out of the way to the 'harmony of five races', 'royal road and paradise' that Manchukuo claims to stand for, and the 'Korea and Japan are one', 'abolition of Korean alphabet' that are the political slogans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imperialism that dubbed the term such as 'national literature' forced the Korean writers to play a role of the political trumpeter for the achievement of its political goal around the time of 『Byeok Gong Mu Han』's publication. Lee Hyo-seok tried to advocate his own national literary theory against this political atmosphere. He intended to go against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the uncomfortable writing even though he could not be free from the magnetic field of Japanese politics. It is 『Byeok Gong Mu Han』 that is the outcome of his literary resistance activity.

Key word: views of reality, writer's message, city, music, human, uncomfortable writing, literary resistance

노상래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9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